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187-3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한 인식

2022. 07. 06.

담당자 송승연 대리
전화 | 02-3014-0752
e-mail | sy.song@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가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가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차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정한울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이소연 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한 인식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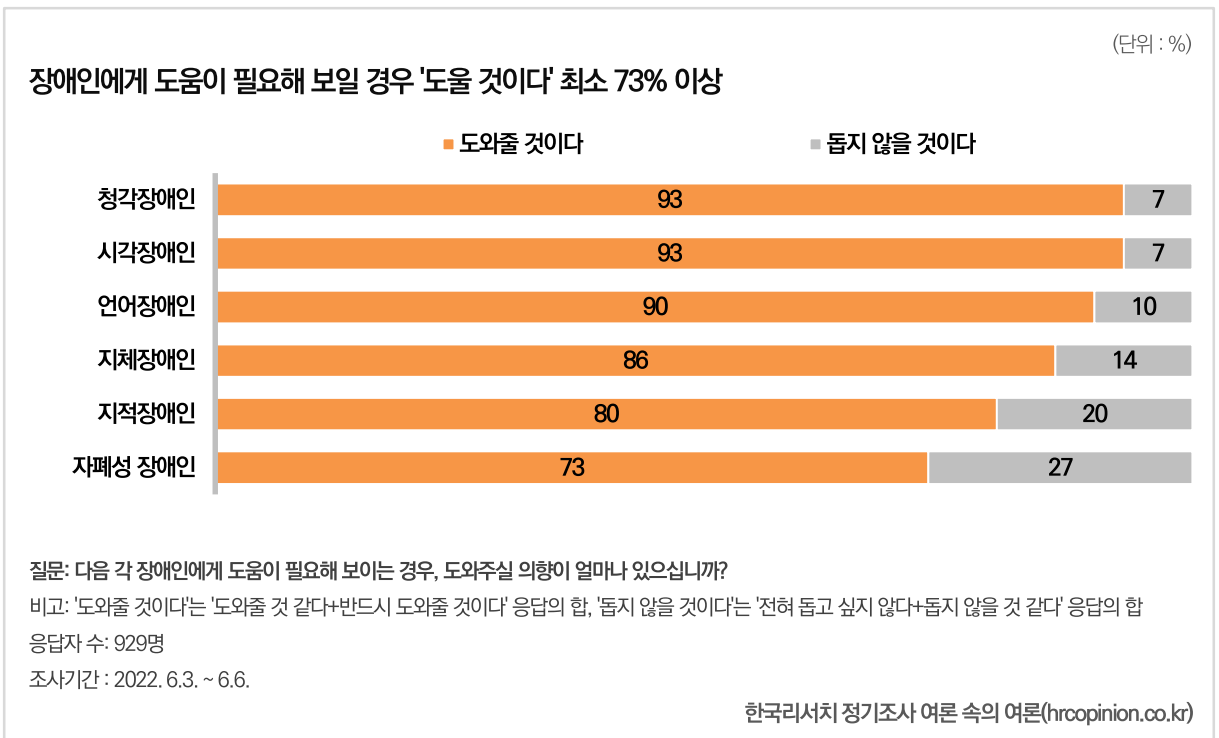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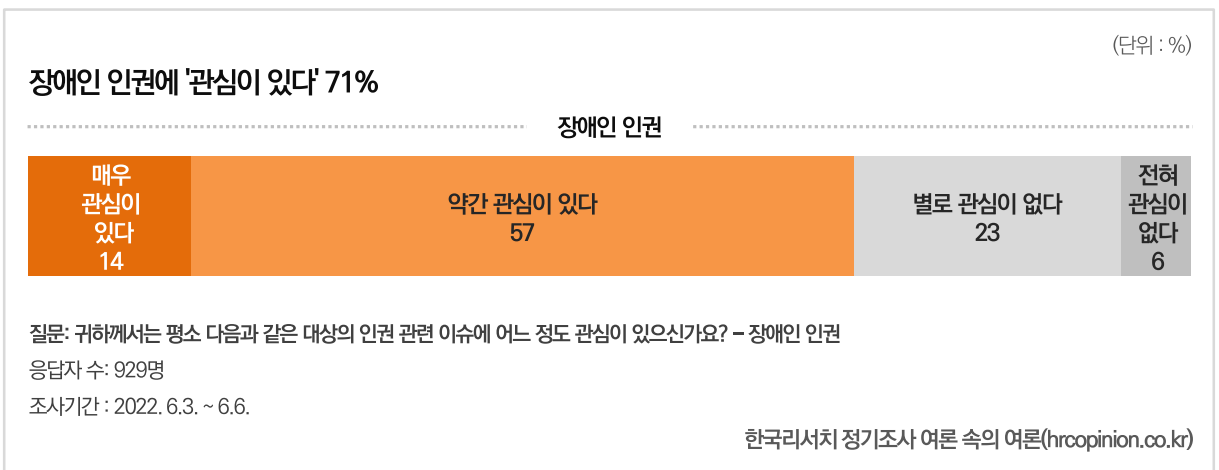
- 지난 2021년 12월 어느 아침 출근길,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서울지하철에 탑승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였다. 지난해 말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는 지난 6월 27일, 31차까지 진행되었다.
- 시위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장연은 주로 아침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에 탑승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열차가 지연되어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한다. 전장연의 시위를 두고 반응은 엇갈린다. '지하철이 붐비는 출근 시간대에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냐'며 비난하는 시민도 있는 반면, '불편하기는 하지만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냐'며 이해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지난 6월 3일~6일 만 18세 이상 남녀 929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이동권 및 시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 우리 사회는 장애인 인권에 관심이 있으며(71%), 장애인을 직장 동료나 친한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도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이 높은 편이다. 장애인이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도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 시위의 주요 주장에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이 80% 이상이며, 장애인 이동권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 비율도 높게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시위 취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 시위 취지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공감하고 있지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 대한 공감 정도는 61%로 시위 취지에 대한 공감이 전장연 시위에 대한 공감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 측면이 있다.
- 응답자의 절반 가량은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으므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어, 전장연 시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 시위 관련 공감 정도 및 긍정적 평가는 장애인 친구나 가족이 있는 집단과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있는(관심 정도가 높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

장애인,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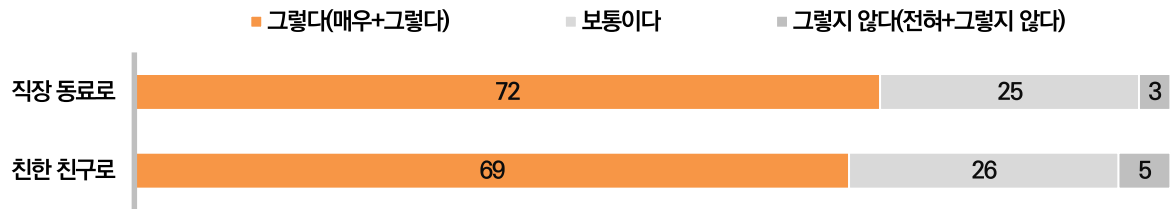
우리 사회, 장애인 인권에 관심이 있고 장애인 차별 심각하다는 인식도 높은 편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응답자의 71%가 장애인 인권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아동 및 청소년 인권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82%)보다는 낮지만 여성인권(69%), 성소수자인권(28%)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보다는 높다. 또한 장애인에게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면, 도움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86%에 달했다. 장애인을 각각 직장 동료, 친한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도 70%에 가까웠다.



(단위 : %)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장애인을 직장동료 또는 친한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함



질문: 다음 진술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나는 장애인을 (직장 동료 / 친한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응답자 수 : 929명

조사기간 : 2022. 6.3. ~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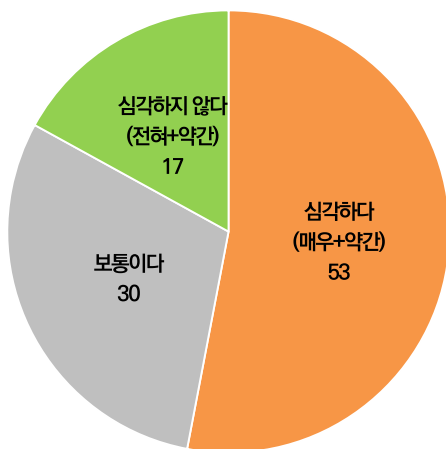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장애인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데에도 다수가 동의

장애인 차별과 이동권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일까? 전체 응답자의 53%가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장애인 차별이 심각하다'고 답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17%)보다 세 배 가량 높았다. 또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어딘가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데에도 80%가 동의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5%)을 크게 앞섰다. 당위적인 인식이 반영된 결과일지도 모르겠으나,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인권 개선에 관심이 많으며, 사회를 이루는 동등한 구성원으로 포용하려는 의향 또한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장연 시위의 배경인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단위 : %)

우리사회에서 장애인 차별이 '심각하다'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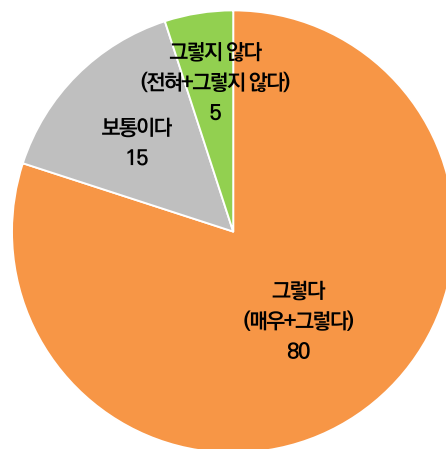


질문: 귀하께서는 우리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장애인 차별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 929명

조사 기간 : 2022. 6.3. ~ 6.6.

장애인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 80%



질문: 귀하께서는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어딘가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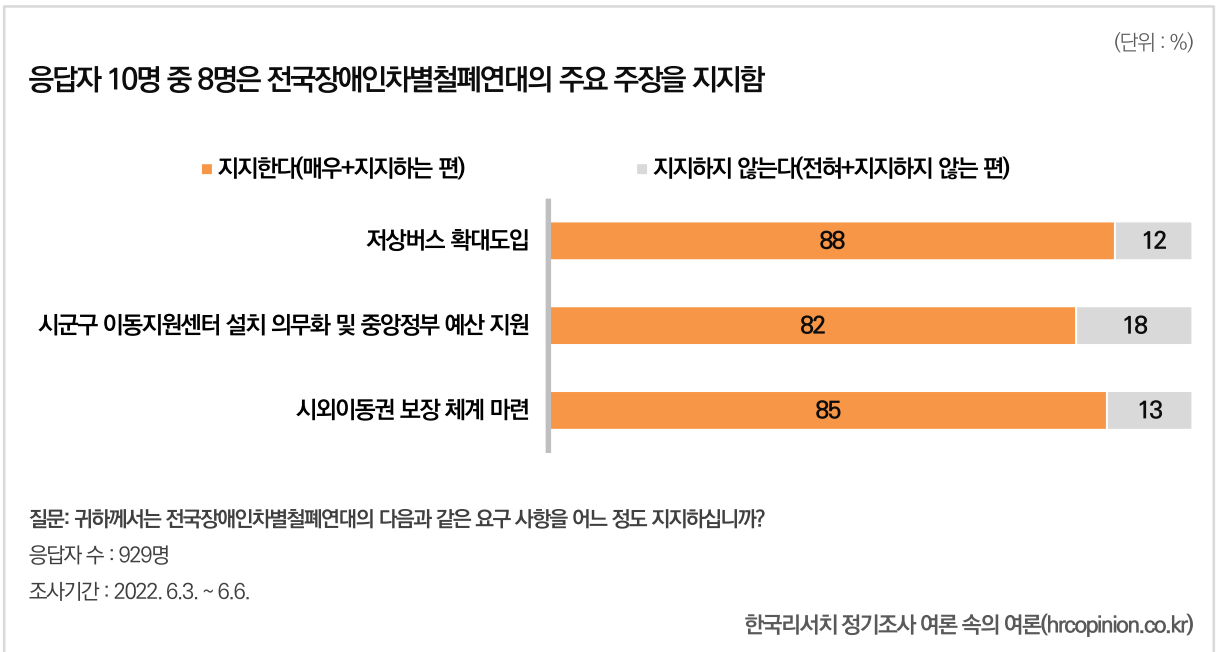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 대한 인식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전장연의 주요 요구사항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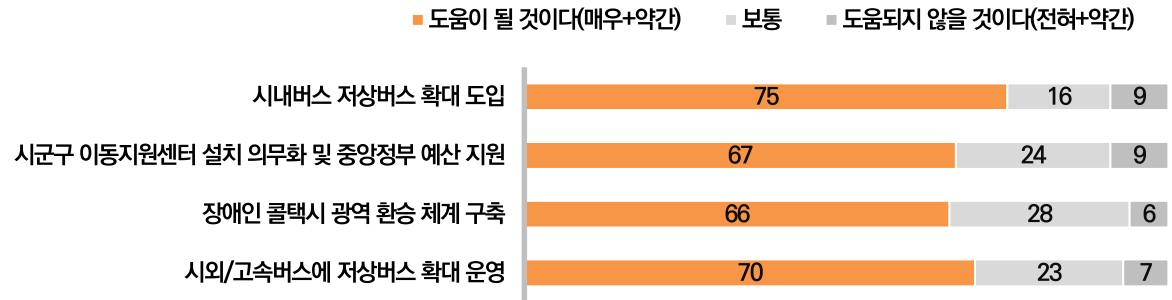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진행한 전장연이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해 내건 주요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저상버스 확대 도입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8%가, 시·군·구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예산 지원에 대해서도 82%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 광역(관외) 이동 체계 마련, 시외·고속버스에 저상버스 확대 운영 등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 체계 마련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5%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전장연의 주요 요구사항이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지지하는 것을 넘어, 이러한 조치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견 또한 높았다. 저상버스 확대 도입이 장애인의 이동 편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75%였으며, 시·군·구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예산 지원은 67%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 체계 마련과 관련하여 장애인 콜택시의 광역 환승 체계 구축은 66%가, 시외·고속버스에 저상버스 확대 운영은 70%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응답자 10명 중 6~7명은 장애인 이동 편의 조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

(단위 : %)



질문: 귀하께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 929명

조사기간 : 2022. 6.3. ~ 6.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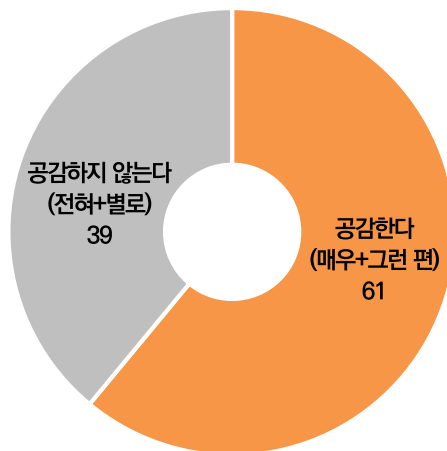
전장연 시위에 공감한다는 비율은 61%로 상대적으로 낮아

‘장애인 이동권 확충이 필요하다’라는 대의, 그리고 이와 관련해 전장연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 이상이 공감하였다. 그런데 전장연의 시위에 대한 의견을 묻자 미묘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올해 진행된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1%가 공감한다고 답했고, 39%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시위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다수이긴 하지만, 장애인 이동권 확충에 공감 및 지지한다는 응답(80% 이상)에 비해 전장연 시위 자체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20%포인트 가량 낮은 것이다.

전장연의 이동권 시위에 공감한다 61%

(단위 : %)

장애인 이동권 관련 주장에 대한 공감도보다 20%포인트 가량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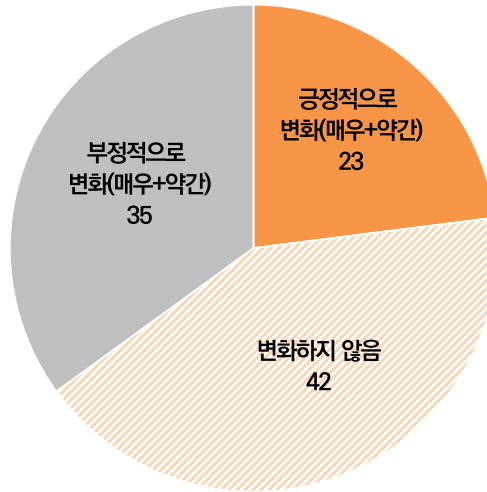
질문: 올해 진행된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응답자 수 : 장애인 이동권 시위 인지자 780명

조사기간 : 2022. 6.3. ~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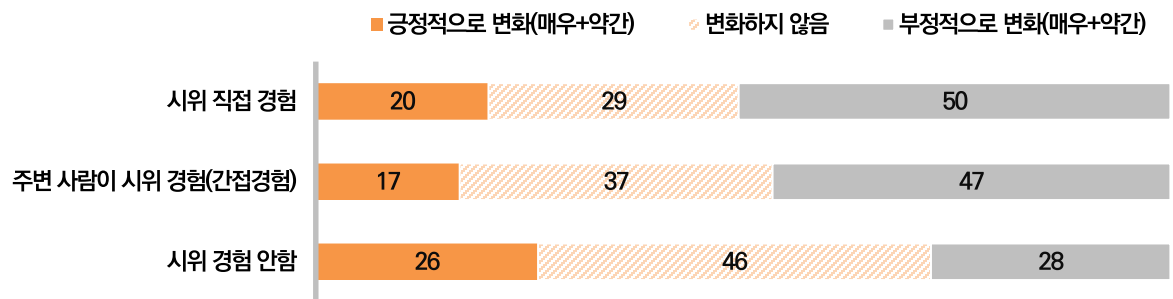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시위 전후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없음' 42%, '부정적 변화' 35%



전장면 시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 절반 가량, 시위 후 장애인에 대한 인식 나빠졌다고 답해

(단위 : %)



질문: 올해 진행된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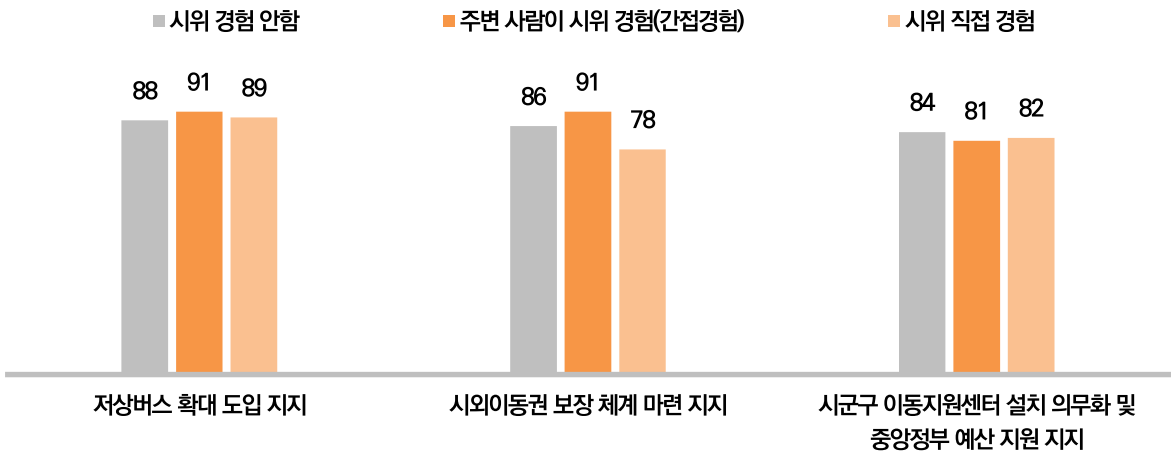
응답자 수 : 장애인 이동권 시위 인지자 780명

조사기간 : 2022. 6.3. ~ 6.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단위 : %)

시위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도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전장연 요구사항에는 찬성의견 높아



질문: 귀하께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어느 정도 지지하십니까?

비고: '지지한다(매우 지지한다+지지하는 편이다)' 응답만 제시

응답자 수 : 929명

조사기간 : 2022. 6.3. ~ 6.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장애인 지인이 있는 사람,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사람은 시위 관련 공감 정도 및 긍정적 평가가 높아

장애인에 대한 관계성과 관심 수준 또한 전장연 시위에 대한 공감 및 평가와 연관되어 있었다. 장애인 친구나 가족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68%가 전장연의 시위에 공감한다고 답해, 없다고 답한 사람의 공감 응답(56%)보다 높았다. 또한 장애인 친구나 가족이 있다고 답한 사람 중 28%가 이번 시위를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답했는데, 이 또한 장애인 친구나 가족이 없다고 답한 사람의 응답(39%)보다 10%포인트 가량 낮은 것이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장애인 인권 관심 정도 및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 도움 의향 정도 종합)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자도 70%가 전장연의 시위에 공감한다고 답해,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자의 공감도(47%)보다 높았다.

(단위 : %)

장애인 친구나 가족이 있는 사람, 전장연 이동권 시위에 공감한다는 응답 높아



질문: 올해 진행된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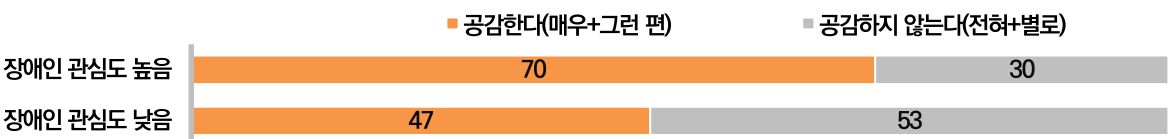
응답자 수 : 장애인 이동권 시위 인지자 780명

조사기간 : 2022. 6.3. ~ 6.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단위 : %)

장애인에 관심도 높은 사람, 전장연 이동권 시위에 공감한다는 응답 높아



질문: 올해 진행된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비고: 장애인 관심도 - 장애인 인권 관심 정도, 6개 유형별 장애인 도움 의향 응답값의 평균을 기준으로 3점 미만은 '관심 없음', 3점 이상은 '관심 있음'으로 리코드함.

응답자 수 : 장애인 이동권 시위 인지자 780명

조사기간 : 2022. 6.3. ~ 6.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장애인 친구나 가족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사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인 접촉 빈도에 따라 분류한 두 집단(주1회 미만/주1회 이상)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을 마주치는 빈도가 높다고 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생긴다고보다는, 장애인과 직접 관계를 맺고 장애인이 처한 상황에 관심을 가질수록 이해의 폭과 공감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장애인 지인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검증						
주요 설문 문항	표본수	있음 (A)	없음 (B)	평균차이 (A-B)	t	P
1. 시위 공감	780	2.77	2.55	0.21	3.398***	0.001
2. 이동권 확충 공감	929	3.08	2.90	0.18	4.337***	0.000
3. 장애인 인식 변화	780	2.97	2.72	0.25	3.367***	0.001
4. 시위 평가	929	2.79	2.57	0.22	2.480*	0.013

장애인 접촉 빈도에 따른 집단 간 차이검증						
주요 설문 문항	표본수	주1회 미만 (A)	주1회 이상 (B)	평균차이 (A-B)	t	P
1. 시위 공감	780	2.61	2.71	-0.10	-1.51	0.131
2. 이동권 확충 공감	929	2.94	3.03	-0.09	-1.931	0.054
3. 장애인 인식 변화	780	2.78	2.88	-0.10	-1.226	0.221
4. 시위 평가	929	2.63	2.70	-0.07	-0.785	0.433

장애인 관심도에 따른 집단 간 차이검증						
주요 설문 문항	표본수	관심 없음 (A)	관심 있음 (B)	평균차이 (A-B)	t	P
1. 시위 공감	780	2.35	2.82	-0.48	-7.516***	0.000
2. 이동권 확충 공감	929	2.75	3.12	-0.36	-8.491***	0.000
3. 장애인 인식 변화	780	2.46	3.04	-0.59	-7.999***	0.000
4. 시위 평가	929	2.38	2.84	-0.47	-5.503***	0.000

- 질문: 1. 올해 진행된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2. 올해 진행된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3. 올해 진행된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4. 귀하께서는 장애인 이동권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주장 내용에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비고: 1) 집단 간 차이검증에는 독립표본 T검증을 활용하였음.
 2) 주요 문항의 평균은 평균이 높을수록 공감 정도가 높거나 긍정적 평가에 가깝도록 리코드한 후 분석하였음.
 3) P: 유의확률(양측), ***p < 0.001; **p < 0.01; *p < 0.5.

조사기간: 2022. 6.3. ~ 6.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장연의 시위 방식에 대해서는 반감이 적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이미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예산 확보와 법률 마련 등 제도적인 뒷받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의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2년 5월 기준 전국 77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929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2\%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2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6,669명, 조사참여 1,179명, 조사완료 929명 (요청대비 13.9%, 참여대비 78.8%)
조사일시	• 2022년 6월 3일 ~ 6월 6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論論

Hankook | Research

